

아프리카중동팀

## [GCC 지역] 코로나19 관련 동향

\* GCC(Gulf Cooperation Council): 페르시아 만안의 6개 아랍산유국이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결성한 지역협력기구  
2020. 4. 10.

### 1. 확산 동향

□ 4월 9일 09시 우리나라 집계 기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90,759명, 사망자는 4,626명으로, 이란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GCC 국가의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.

- 이란의 4월 9일 기준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64,586명, 3,993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, 역내 발병의 71.2%(확진자 기준)를 차지함.
-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확진자 수는 각각 2,932명, 2,659명으로 3일 이후 검진을 확대하면서 급증세를 보임.
- 인구 규모가 278만 명에 불과한 카타르의 확진자는 2,210명, 사망자는 6명으로 집계되는 등 GCC 국가의 백만 명 당 확진자 수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.

표 1. 중동 내 코로나19 확진 현황 (2020. 4. 9. 09시 기준)

단위: 명

	국가	확진자	사망자	백만 명 당 확진자
1	이란	64,586	3,993	790
2	이스라엘	9,404	71	1,059
3	사우디아라비아	2,932	41	87
4	아랍에미리트	2,659	12	276
5	카타르	2,210	6	794
6	알제리	1,468	194	35
7	이집트	1,450	94	15
8	모로코	1,242	91	34
9	이라크	1,122	65	29
10	쿠웨이트	855	1	207
11	바레인	821	5	523
12	튀니지	623	23	54
13	레바논	575	19	84
14	오만	419	2	87
15	요르단	353	6	35
16	리비아	21	1	3
17	시리아	19	2	1
	총계	90,759	4,626	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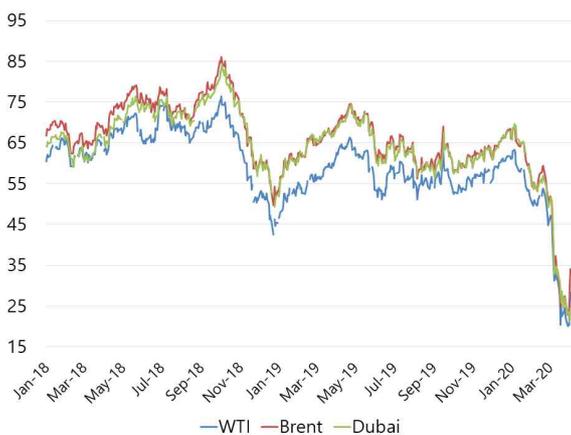
자료: 질병관리본부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. 국외 발생 현황 [http://ncov.mohw.go.kr/bdBoardList\\_Real.do?brdCd=1&brdGubun=14&ncvContSeq=&contSeq=&boardId=&gubun=](http://ncov.mohw.go.kr/bdBoardList_Real.do?brdCd=1&brdGubun=14&ncvContSeq=&contSeq=&boardId=&gubun=) (검색일: 2020. 4. 9).

## 2. 경제적 영향

-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국제유가도 배럴 당 20달러대에 머무르고 있어 산유국이 집중된 중동 국가들의 경제적 타격은 소비와 생산 부문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음.
  - 쇼핑몰, 레스토랑, 공원 등에 대한 폐쇄, 대중교통 운행 중단 및 통행금지 등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민간 부문 경제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.
  - UAE는 2020년 10월에 두바이 엑스포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1년 연기를 요청하였고, 카타르는 자국 내 외국인 건설 노동자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자 2020년 월드컵 건설 진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국제행사 관련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함.
  - 에미레이트, 에티하드, 카타르, 사우디아라비안 항공 등의 직접 고용 규모는 20만 명으로, 일부 필수 노선을 제외하고 대부분 운항을 중단하여 막대한 손실과 함께 고용 불안도 가중되고 있음.
  - 코로나19로 인한 원유 수요 감소와 OPEC+의 감산 합의 난항으로 국제유가가 20달러에 머무르고 있어 재정 수입에서 석유 부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GCC 산유국의 향후 재정수지 적자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.

그림 1. 국제유가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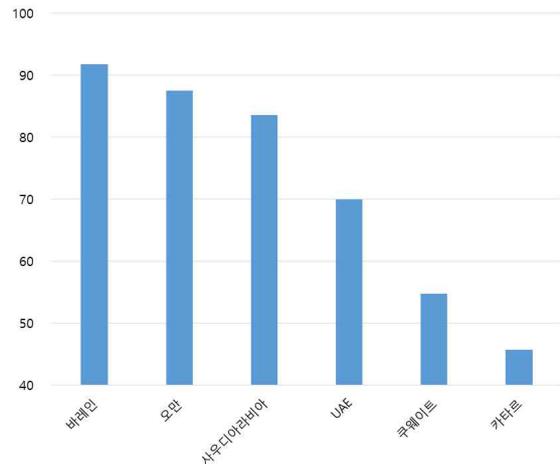
(단위: \$/b)



자료: Bloomberg.

그림 2. GCC 국가별 재정균형유가

(단위: \$/b)



주: 2020년 전망치임.

자료: IMF, data.

<https://data.imf.org/regular.aspx?key=60214246> (검색일: 2020.4.9)

### 3. 주요 조치 및 대응

□ GCC 국가들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는 한편,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고 있음.

○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한 GCC 국가 정부들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각종 비용 감면, 중소기업 지원 중심의 재정 및 금융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.

표 2. GCC 주요국의 코로나19 관련 재정 및 금융 지원 정책

국가	재정정책	금융정책
사우디아라비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3월 20일 사우디 재무부는 중소기업 및 민간 부문 긴급 지원을 위한 700억 리알(186억 달러)의 부양책 발표, 여기에는 외국인 고용 납부금, 외국인의 거주증 발행 비용, 법인세 등에 대한 면제 및 지급 유예 등의 지원 내용 포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3월 20일 사우디 중앙은행인 SAMA (Saudi Arabian Monetary Authority)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, 대출 이자 인하 등 500억 리알(166억 달러)의 금융 지원 정책 발표</li> </ul>
UAE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3월 12일 두바이 정부는 각종 수수료 및 세금 감면, 전기 및 수도 요금 인하 등을 포함하는 15억 디르함(4.1억 달러)의 재정 정책 발표</li> <li>· 3월 16일 아부다비 정부는 가단 21 (Tomorrow 21)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자국민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해 2020년 말까지 13억 달러의 수도 및 전기 보조금 지급 관련 지원책 발표</li> <li>· 3월 22일 UAE 연방정부는 민간 부문에 대한 수수료 및 유틸리티 요금 감면 등의 내용을 포함한 160억 디르함(43.6억 달러) 규모의 경기부양책 추가 책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3월 14일 UAE 중앙은행은 개인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무이자 및 저리 대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,000억 디르함(272억 달러)의 금융 패키지 발표</li> </ul>
오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3월 20일 오만 정부는 군사 및 안보 등 관련 부서 예산 5% 삭감,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 식량 비축 관련 예산은 증액, 오만 국부펀드(AI Raffd Fund) 통한 중소기업 대출 확대 등의 정책 발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3월 18일 오만 중앙은행은 중소기업의 대출 이자 지급 6개월 유예, 신규 대출 확대 등을 포함한 80억 리알(208억 달러)의 금융 지원 패키지 발표</li> </ul>
카타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3월 15일 카타르 위기관리 최고위원회 (SCCM: Supreme Committee for Crisis Management)는 750억 리알(약 206억 달러)의 경기부양 계획 발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3월 16일 카타르 중앙은행은 자국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를 각각 50bp, 100bp 인하</li> <li>· 향후 6개월간 기업 및 민간 대출에 대한 이자 징수 유예</li> </ul>